

미 SEC 위원장 자본시장 규제 예고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업, 경제적 지대 낮추겠다”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 제동

50여개 규제 초안 입법화 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리 겐슬러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경제적 지대를 낮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금융업계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일반 개인은 물론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경제적 지대는 완전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이익을 말한다.

저널은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사이 금융업의 이윤을 압박할 수 있는 공격적인 규제 의제의 윤곽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전문가, 변호사, 경제학자들과 함께 이 의제들을 입법화하는 50여개 규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겐슬러 위원장의 주요 타겟은 이른바 투자자 주식 주문정보 판매(PFOF) 행위다. 이는 소규모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정보를 공식 증권거래소가 아닌 초단타 매매(HFT)를 하는 시타델증권이나 버투파이낸셜과 같은 증권 거래회사에 보내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의 경우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대신 이런 투자자 주식 주문정보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다.

공식 거래소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모두 공개하고 여러 주문을 취합해 최적의 가격을 공표하지만, 시타델증권과 같은 비공식 거래소들은 거래 체결 전 호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겐슬러 위원장이 투자자 주식 주문정보 판매가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증권사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그는 지난 8월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로빈후드와 버투파이낸셜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한 이른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나 인종 갈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ESG 투자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말로 ESG 성과가 있는지 측정하는 일관된 척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도 이런 측정 지표가 없어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저널은 겐슬러 위원장의 공격적인 규제 행보를 두고 일부 공화당 측은 한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고 있고, 업계에선 겐슬러의 의제가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SEC가 아직 공식적인 규제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SEC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업계 단체들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교육 평등 촉구하는 아프간 여성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사립학교에서 5일(현지시간) '교사의 날' 행사에 참석한 여성과 교사, 학생들이 교육평등을 촉구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온난화에 러시아 영구동토층 사라진다

냉장고 구입 등 생활상 급변

지반 뒤틀려 기간시설 위험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러시아 영구동토층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국토 3분의 2를 차지하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 자료를 보면 1976년 이후 러시아 평균기온은 섭씨 0.5도 정도 상승해 세계 평균보다 2.5배 빨리 온난화하고 있다. 토양 온도가 물이 어는 점 이하로 지속되지 않음에 따라 땅속 얼음이 녹으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동토층에서 물이 나와 불에 하천에 흐르는 물이 1980년대보다 최대 30% 늘었다고 추산했다. 물이 많아져 밭은 습지로 변했다. 영구동토대 주민들은 고기 같은 식품을 지하실에 보관했지만 이제 냉장고를 사서 쓰고 있다.

장례식 때는 이제 땅을 깊이 파기 위해 뿔감을 태워 장지를 녹이는 작업도 사라졌다. 온난화로 인한 동토층 상실은 단순한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와 경제손실도 촉발하고 있다.

지반이 불안정해지면서 광산, 공장, 송유관 시설들에 뒤틀림,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작년 5월에는 북부 노릴스크에서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 디젤 2만t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140개 기지에서 영구동토층을 상시로 감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검찰총장은 영구동토층에 건설된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당 지역에 지시했다.

러시아 경제관리들은 동토층 손실로 러시아 기간시설 5분의 1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구동토층에 있는 건물과 기간시설은 이미 40%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러시아 경제가 2050년까지 추가로 입을 손실이 680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영구동토층의 손실은 지구온난화, 그에 따른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직접 요인으로도 주목된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영구동토층이 녹아 그 안에 있던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메탄과 같은 실가스가 대량 방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우슈비츠서 유대인 혐오 낙서...경찰 수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유대인 혐오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우슈비츠 기념관 직원들은 지난 4일 수용소 내부 9개 막사에서 스프레이 페인트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내용이 적힌 것을 여러 개 발견했다. 이 낙서는 40개의 나치 수용소 중 가장 큰 아우슈비츠 II-비르케나우 현장에서 발견된 혐오 낙서 수사에 나섰다.

아우슈비츠 기념관 직원들은 낙서가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아침 아우슈비츠 '죽음의 막사' 인근에 있었거나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

성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죽음의 문'과 비르케나우 입구, 목조 막사 주변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

아우슈비츠 기념관은 성명을 내고 "이 반달리즘(Vandalism·문화유산이나 예술, 공공시설, 자연경관 등을 파괴·훼손하는 행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의 상징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과 기념관은 폴란드에 세워진 나치 수용소를 그대로 보존해 후세에 역사의 비극을 알리고 있다. 아우슈비츠가 문을 연 후 4년 반 동안 최소 110만명이 이곳에서 희생됐는데 이 중 100만명이 유대인이었다. /연합뉴스

美복지부 “백신 덕에 5개월간

고령자 등 3만9천명 목숨 건져”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덕에 4만 명이 목숨을 잃는 고령자·장애인이 목숨을 건지는 등 백신이 뚜렷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보건복지부는 올 1~5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미국의 국가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3만9천 명이 사망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며, 말기 신장 질환이나 루게릭병(근육이 위축되는 질환) 등을 포함한 장애인도 가입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기간 백신 접종 덕에 메디케어 가입자 중 약 26만5000명이 코로나19 감염을 모면했고, 10만7000명은 병원 입원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루이비통 패션쇼에 난입한 기후변화 시위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2022 봄-여름 기성복 패션쇼 무대에 기후변화 활동가가 난입해 '과소비=멸종'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활동가는 국제 기후변화 단체인 '지구의 친구들'(Amis de la Terre) 프랑스 지부 소속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일 기사다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 최저...총선 먹구름

아베·스가 정권 계승이 원인

기사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새로 발족한 정권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신조 및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지지율 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내각 출범 후 최단 시간에 총선을 실시해 권력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사다 총리의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이 4~5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가

기사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반응했고 20%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범 직후 지지율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조사를 시작한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가장 낮았다.

2001년 이후 고이즈미를 시작으로 기사다까지 10차례(아베는 2회로 간주)의 총리 교체와 새 내각 발족이 있었지만 기사다 내각의 지지율은 앞서 최저 기록이었던 아사 다로 내각(48%)보다 낮았다. 직전 스가 내각은 출범 직후 지지율 65%를 기록해 역대 3위였던 것과는 대비된다.

기사다 내각의 지지율 저조는 다른 언론사의 조

사에서도 확인된다. 역시 4~5일 실시된 니혼케이제이 신문과 TV도쿄의 공동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59%로 아사히보다는 높았으나 현행 방식을 채택한 2002년 이후 발족한 9개 내각 중 7위였다.

기사다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앞선 정권의 부정적인 측면과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사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5%는 기사다 정권이 아베·스가 정권을 계승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반응했다. 계승을 원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3%였다. /연합뉴스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똥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